



조 성 검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통계로 본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도전

통계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짐작해 보기란 쉽지 않다. 이를 가능해 보기 위한 방법으로 종합일간신문에서 통계란 단어를 사용한 기사 수가 얼마인지 세어 보았는데 최근 일 년간 통계란 단어를 한번 이상 언급한 기사 수를 보니 7,762개에 달하고 있다. 10여 년 전인 2000년의 3,969건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고 20여 년 전인 1991년의 1,581건에 비해 5 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정치'라는 단어를 언급한 기사는 두 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통계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간신문에서 통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빈도가 실제 통계사용량을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겠지만 대략이나마 그 사용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통계관련 기사는 그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역도 확대되었다. 예컨대 다문화를 언급한 기

사가 2000년에 116건이었지만 그 중에 '통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일 년 동안 살펴보면 다문화를 언급한 기사 3,738건 중 108건이 통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교육이나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관한 기사도 마찬가지로 통계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즉 복지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가 증가한 속도보다 복지와 통계를 동시에 사용한 기사 수의 증가가 더 빠르다. 통계가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 사용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을 데이터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좋아하는 신문을 읽는다. 자기 생각과 다른 정당의 정책 설명회에는 가지 않는다. 객관적 현실을 파악해서 입장이나 태도를 결정하기 보다는 우

리의 입장과 태도에 맞추어 현실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나 통계를 사용하면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입각해서 현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사회에서 그간 통계 사용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곧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 해결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통계를 사용하면 최소한 현실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이 견해를 달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어느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높으나를 판단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최소한 과거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해 훨씬 과학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계는 또한 민주화와도 관련이 깊다. 우선 통계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자. 통계 조사를 위한 대상을 추출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 모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같아지도록 부여되는 경우다. 즉 전체 집단의 의견이나 실태를 모두 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선정해서 조사하지만 그 기회는 동일하게 부여된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의 추론과정을 보아도 그렇다. 각각의 관찰된 값은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모든 개체의 관찰 값을 합해서 얻게 되는 전체 값에서는 각 개체가 가졌던 오차가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거나 최소화된다. 즉 개개

의 관찰은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구하는 전체 대표 값은 오차가 사라진 진실 값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의사결정에 적용해 보면 사회 구성원 각자는 비록 완전하지 않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개개인의 의견과 판단이 총합된 사회적 여론은 각 개개인의 판단보다 뛰어난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통계의 절차 및 사고나 원리는 민주주의의 그것과 같다.

통계의 또 하나 특징은 숫자 자체를 가지고 품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본다는 점이다. 숫자가 생산된 과정이 그 결과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처럼 과정을 중시하는 통계적 인식 역시 민주주의에 부합된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결정에 도달했느냐 보다는 어떻게 도달했느냐가 더 중시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도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했고, 많은 요인들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통계의 활용이 증대되었다는 점 역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 원자력 폐기장 건설, 환경보호, 소득분배, 부동산, 교육, 광우병 등과 관련해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논란이 언제나 이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민주화를 이루어왔고, 이것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적 원칙들이 점점 더 존중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화에는 통계사용의 증대와 함께 모든 구성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

는 통계적 사고의 확산 그리고 통계확산에 따른 객관적 현실인식의 증대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또한 종종 우리 사회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말을 많이 한다. 경쟁 지향적이라는 말도 한다. 따라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한다. 이런 면에서도 통계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컨대 복지, 과학 등 통계가 활용되는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를 산출한다는 것은 그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통계가 산출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통계가 보다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둔다는 즉 다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통계를 생산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또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많은 통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분명 한국사회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통계적 사고가 필요하다. 통계적 사고는 선입견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과정보다는 절차를 중시하며,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주의 원칙

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계생산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나날이 통계조사는 어려워지고 있고, 통계조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협조 정도는 낮아지고 있다. 또 인간의 많은 행동이 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을 조사하기에는 지금의 조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통계생산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 조사업체는 국제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통계의 생산과정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가 사회적 변화의 핵심요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통계만 하면 국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 다만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고, 통계의 활용은 민주적 원리와 과학적 사고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통계사용은 급속히 증가되었고, 그것은 우리나라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숫자로 된 정보를 더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의 교육과 생산 그리고 활용에 투입하는 노력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통계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부여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